

2010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柳應浩(1911년~1994)

柳應浩는 1911년 8월 14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晋州 柳씨 錫泰와 어머니 蘇仲康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업능력을 발휘하여 徽文高等普通學校와 일본 山形高等學校를 거쳐 1935년 東京帝國大學 언어학과를 졸업하였다. 귀국한 뒤에는 혜화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를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의 초대 주요교수를 역임(1946-1950)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여 출마했으나 당시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 속에서 南勞黨 通諜 사건<sup>1)</sup>에 연루되어 선거 사흘 전 체포되었다. 한국전쟁 중 월북하여 김일성대학 어문학부 교수를 지냈다. 1950년대 말 숙청<sup>2)</sup>되었지만 60년대 말 복권되어 평양 김형직 사범대에서 영어과 교수를 지냈다.<sup>3)</sup>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였기에 그에겐 언어학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1930년대와 해방 직후의 국어학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가 국어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의 업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sup>4)</sup> 언어학자이자 학술운동가로서 그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제한된 자료로나마 그의 활동을 언어학자로서의 연구활동과 학술운동가로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공적을 기리고자 한다.

### 언어학자로서의 연구 활동

유응호는 조선어학계에 유럽언어학을 소개하고 이의 수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언어학자로 근대국어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 규범화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조선어학계에서는 조선어에 대한 학술적 논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처럼 조선어학의 과학화를 주창하는 분위기에서 서구 언어이론의 도입은 조선어학계의 과제였으며, 동경제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유응호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기대도 그만큼 컸다.

1935년 귀국한 유응호는 朴勝彬이 이끄는 조선어학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sup>5)</sup>, 기관지「正音」에 서구의 언어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는데, 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사상과 언어관을 반영하는 서구 언어이론을 토대로 조선어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는 조선어학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언어이론을 선택적으로 소개하였다는 의미이다.

1) 1950년 5월 27일에 발표된 공안 사건. 국회의원 입후보자 9명을 '정부 전복을 위해 국회 진출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2) 북한에서는 1958년 반종파투쟁의 결과로 김두봉과 연안파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다. 유응호는 이 무렵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

3) 柳應浩가 작고한 시점 및 월북 후 삶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인 柳根一 조선일보 주필의 인터뷰 기사(조선일보 2008년 12월 24일자)를 참조하였다.

4) 유응호의 1930년대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고영근(1989)이 유일하다.

5) 김민수 선생님의 구술에 따르면, 유응호는 박승빈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으며 이 인연으로 귀국 후 조선어학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의 철자법 논쟁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1936. 6. “言語의 形態.” 「正音」14.  
 1936. 8. “言語發達の 本質에 關한 概觀.” 「正音」15.  
 1936.12. “音韻法則에 關하여 (一).” 「正音」17.

그는 소장문법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파울(Paul, H.)의 「언어사원리」(1909)의 제1장을 번역하여 “言語發達の 本質에 關한 概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데, 그는 譯者序를 통해 언어에 대한 역사과학적 접근이 우리말 연구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파울의 이론을 “그의 原理論은 言語의 構成理論과 가튼것이 안이라 外部로부터 言語에 作用하는 여러가지의 物理的及心理的 要素의 分析이며 쏘이와가튼 要素가 各各獨自의 法則에 따라서 言語傳達이라는 共同의 目的으로 向하여 作用하는데 必要한 條件이되는 諸現象의 相互關係를 研究함에 있다”와 같이 評說하였는데, 이처럼 언어발전의 법칙성을 탐구하는 파울의 역사주의적 관점은 젊은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에게 매력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언어이론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sup>6)</sup>, 역사주의적 관점은 유응호의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유지된다.

‘언어의 형태’라는 논문은 그가 귀국 후 가장 먼저 발표한 논문인데, 이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형태론(문법론)을 설명하면서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언어를 유형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문법의 정의이고, 둘째는 언어 유형론의 관점이다. 그는 문법을 “우리머리속에있는 內在的言語를 文章이라는 形式으로 表現함에는 여러 가지의約束이 이스며 그 約束이 言語에 따라 各各 다른 것을 알수있는데 이約束이 卽 言語의 運用을 規定하는 文法이다.”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파울이 언어변화 원리를 ‘심리적기구’와 ‘언어관습’의 상호관계로 설명한 것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내재적언어’는 ‘심리적기구’에, ‘약속(문법)’은 ‘언어관습’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내재적언어’가 파울의 ‘심리적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한편으로 바이스게르버(Leo Weisgerber)의 ‘내적언어형식’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시기 그는 파울의 역사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 다른 언어이론과의 절충을 통해 자신의 언어관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법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의 유형은 ‘내재적언어’(개인의 심리작용 혹은 내적언어형식)와 ‘문법(약속)’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우리말이 현대어에서는 순수첨가어(교착어)라 할 수 있지만 중세어에서는 종속적 첨가어로 볼 수 있다는 견해<sup>7)</sup>를 제시하고 있다.

‘음운법칙에 관하여’란 논문은 미완성 논문인데, 여기에서도 언어를 유동적인 실체로 인식하는 파울의 역사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음운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운법칙과 특수음운법칙을 구분하면서 우리말의 예를 통해 일반음운법칙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각 시대 및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과 관련한 특수음운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논문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다.

세 편의 논문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그가 대학 재학 시절 접했던 서구 언어이론 중 파울

6) 유응호가 유학할 당시 일본의 언어학계는 역사비교언어학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언어이론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예로 「일반언어학강의」는 1928년 「言語學原論」(小林英夫 譯)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는 영어와 독일어 번역보다 빠른 것이었다.  
 7) 意義辭(실사)의 모음에 따라 形態辭(허사)의 모음이 달라지는 모음조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모음조화 규칙의 지배로 의의사에 형태사가 영향 받는 것은 순수 첨가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 역사주의적 접근법에 주목했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언어이론을 정립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6년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 논문을 발표하지 않아 그가 언어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어떤 모색을 하였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다만 해방 이후 발표한 논문과 강의안을 통해 그의 언어연구가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945.10. “한글 訓民正音 頒布記念日에 際하여.” 「자유신문」(10월 9일자)

1946.10. “朝鮮語唇輕音에 關한 研究： 特히 唇輕音「ㄹ」의 音價及變遷에 關하여.” 「民族文化」(민족문화연구소)2.

1947. <言語學概論>(강의록)<sup>8)</sup>

1949. 4. “現代言語學的 發達.” 「學風」2-3.

해방되던 해 맞은 한글날 그는 훈민정음의 창제의 근본적 정신과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는데, 짧은 분량으로 소리와 문자조직의 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한 것이 돋보인다. 이후 발표한 순경음에 대한 논문은 음운학자로서의 역량을 내보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唇輕音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것과 다른 점<sup>9)</sup>이 있지만, 성운학과 현대음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 수준이 높다.

그런데 30년대 진행한 그의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해방 이후 발표한 논문 중 주목할 것은 ‘현대언어학의 발달’(1949)이다. 이 논문은 역사-비교언어학으로부터 내용중심문법이론과 구조주의 언어이론에 이르기까지의 이론 전개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는 이 논문의 마지막에 소쉬르(Saussure, F.)의 언어이론을 소개하며, 소쉬르의 구조주의가 현대언어학의 주류 이론이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파울-분트-바이스게르버-소쉬르’로 이어지는 언어학의 흐름을 언어 연구 영역의 심화확대 과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파울의 심리주의와 분트의 민족심리주의가 대립되다가 바이스게르버에 의해 절충되었고 소쉬르에 의해서는 사회적심리가 체계적으로 해명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역사주의적 탐구와 언어구성 체계에 대한 탐구를 종합함으로써 언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소쉬르의 공헌이 共時言語學的 원리를 제시한 데 있다고 보았다. .

이러한 생각은 <언어학개론> 강의록에도 잘 나타나는데, 강의 總論에서는 파울의 사적언어이론과 소쉬르의 구조주의이론을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언어학의 대상, 과제,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론에서는 음운론과 계통론을 다루고 있는데, 음운론 부분에서는 공시적 음운론과 통시적 음운론의 방법과 실재를 설명하였고, 계통론 부분에서는 語族 구분의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계통의 실재를 자세하게 보이고 있다.<sup>10)</sup> 이 강의록을 통해 그가 역사비교언어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언어이론을 교육하는 학과체제를 구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외국어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독일어 교육을 위한 기초 문법서를 발간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49. 12. 「基礎獨逸文典」서울: 東邦文化社.

8) 김민수 교수가 1947년 유응호로부터 언어학개론을 수강할 당시 기록한 강의록이다.

9) 그는 ‘더벼’가 ‘더워’와 ‘더버’로 변천되었음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10) 고대 인도어를 설명하면서 파니니문법의 규범문법적 특징을 소개한 것은 그의 언어학 지식이 방대했음을 보여준다.

월북한 후 그는 56년까지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는 그 당시 북한 국어학의 전반적인 동향이 규범화 연구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56년 어음론 강의라는 제목으로 4차에 걸쳐 紙上講義를 진행한다. 이 내용은 194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강의안 중 어음론 부분을 보완한 수준이고, 조선어의 음운 예가 풍부하게 포함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 1956. 4. “조선어 어음론 강의(1).” 「조선어문」2.
- 1956. 8. “조선어 어음론 강의(2).” 「조선어문」4.
- 1956.10. “조선어 어음론 강의(3).” 「조선어문」5.
- 1956.12. “조선어 어음론 강의(4).” 「조선어문」6.

이 지상강의에서도 그는 언어이론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러시아 언어학자인 꾸르트네, 쉘르바 등을 거론하며 조선어 어음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이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특징은 ‘언어학의 각 부분들 즉 어음론, 어휘론, 문법 등의 내적 연계를 중요시하고, 음운의 변화 발전에 주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그는 소쉬르를 비롯한 구조주의학자들의 관념론적 이론은 음운의 일면적 성질과 기능만을 과대시하는 문제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주의 비판은 북한 언어학이 유물론적 이론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이론적 모색의 귀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그가 유물론적 관점에서 언어학을 연구했다면, 파울이 강조하는 언어의 역사성과 바이스게르버와 소쉬르가 강조하는 언어의 체계성을 조화하는 언어이론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조선어 어음론 강의(1)에서 어음론을 “언어의 어음 체계 및 변화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즉 언어를 구성하는 자료의 방면으로부터 이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라고 정의한 것은 체계와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 언어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응호는 자신의 언어관에 기반하여 서구의 언어이론을 융합하려 했던 언어학자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술운동가로서의 활동

해방 이후 新國家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 학계에서도 이를 위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1945년 8월 16일 白南雲<sup>11)</sup>이 중심이 되어 國策研究機關을 지향한 朝鮮學術院을 창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조선학술원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白南雲이 주도해 창립되었지만, ‘순전한 학술단체’로 활동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고, 이에 공감하는 명망 있는 각 분야의 중견학자들이 조선학술원에 참여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학술원 회원은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진보적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보수적 실증주의자 등을 망라하고 있었다.<sup>12)</sup>

11) 백남운(1894.2.11~1979)은 최초의 사회경제사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조선사회경제사」(1933)를 발간한 대표적인 좌파경제학자이다. 1945년 9월 조선학술원을 설립하고 원장에 취임하였다. 1946년 조선신민당의 경성특별위원회(후에 남조선신민당)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을 지냈으며, 좌우의 대립이 격심해지자 여운형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창당하여 좌우통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1947년경 월북하였다. 월북 후 교육상(1948), 과학원 원장(1952), 최고인민회의 의장(1969), 조국전선의장(1974) 등을 지냈다.

12) 조선학술원의 중립성은 崔鉉培(어학), 李秉岐(문학), 李丙燾(사학), 朴鍾鴻(철학) 등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응호는 해방 직후 白南雲과 申南澈<sup>13)</sup>을 도와 조선학술원을 설립하는 데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설립 당시에는 상임위원이나 서기국 임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진으로서 언어학 분야의 학술운동을 관장하였고<sup>14)</sup>, 이후 상임위원에 선임된다. 조선학술원이 문화정책 등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어문정책 논의에서 유응호의 입장과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가 어문정책과 관련한 논문 등을 거의 남기지 않아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입장은 당시 정황이나 기사문 등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조선학술원이 한자폐지 등 군정청에 의해 진행되는 어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한자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자유신문」(1946년 3월 5일자)에서 백남운은 ‘과거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조선과 중국의 교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자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점, 한자를 섞지 않고 우리말로만 모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한자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선학술원 대표 자격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볼 때 백남운의 견해는 조선학술원의 입장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유응호의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 가장 강력한 어문단체였던 조선어학회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유응호가 참여한 어문운동단체인 ‘國語文化普及會’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응호는 國語文化普及會의 창립에 관여하였는데, 국어문화보급회는 조선어학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어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의 성격은 「서울신문」(1946년 2월 12일자)의 기사문<sup>15)</sup>과 참여인물<sup>16)</sup>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기사문에 인용된 이 단체의 취지문 중 “訓民正音의 근본정신을 옳게 이해하여 통일된 국어의 연구 보급에 힘쓰는 동시에 옳은 민주주의 노선 위에서 크게 국어문화를 일으키어 세계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터”라는 부분은 ‘옳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어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이 단체에 참여한 홍기문, 이승녕, 김수경, 이희승 등이 조선어학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적 민족주의를 견지한 점도 이 단체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좌파 지식인 중 민족주의를 포용하여 학술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던 유응호, 신남철, 홍기문 등은 ‘비판적 조선학’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民族主義의 過剩을 경계한 ‘비판적 조선학’을 매개로 이승녕, 이희승 등과 연합하였던 것이다.

朝鮮言語學會도 이러한 맥락에서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4월 柳應浩는 李熙昇 ,

---

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학술원이 당파적 색채를 띠지 않고 중립적 학술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좌우를 대표하는 조선공산당과 한민당으로부터 동시에 배척당하게 된다. 어문학분야의 가장 강력한 단체였던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한 이극로, 안재홍 등은 ‘신민족주의’ 이념을 주창한 국민당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고 조선학술원과는 대립적이었다.

13) 백남운의 최측근으로 조선학술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조직, 기획)을 한 申南澈은 휘문고보와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1931년 조선어학연구회 창립 당시 간사로 선출되어 활동했으며, 이 연구회의 기관지인 「正音」(1934.4)에 소련 언어학자 마르의 언어이론을 번역 소개한 “언어의 성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조선어학연구회를 무대로 활동했던 유응호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안에 반대하여 교수직을 사퇴한 후 1947년경 월북하여 김일성대 교수를 역임했다.

14) 어학 분야의 상임위원이었던 최현배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후 학술원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15) “세계의 자랑이요 우리의 생명인 국어의 연구와 보급은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 긴급한 문제임에 비추어 國語文化普及會가 새로이 탄생되었다. 동회는 訓民正音의 근본정신을 옳게 이해하여 통일된 국어의 연구 보급에 힘쓰는 동시에 옳은 민주주의 노선 위에서 크게 국어문화를 일으키어 세계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터이라고하여 장차 전선 각지에 지부, 분회를 두어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리라고 하는 바 앞으로 활동이 자못 기대되는 바이다.”

16) 副委員長:洪起文 / 庶務:李甲斗 金大雄 / 企劃部:金台俊 申南澈 / 財務部:金乎 郭智勳 / 普及部:李甲燮 咸秉業 車貞順 / 研究部:柳應浩 李崇寧 金壽卿 金源柱 / 出版部:李泰俊 洪起文 / 委員:李熙昇 金昊圭 金健哲 朴安民 朴駿

洪起文, 方鍾鉉, 金善琪, 李崇寧, 金壽卿 등과 함께 朝鮮言語學會를 창설한다. 현재 대부분 국어학사에서는 조선언어학회를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학회가 창립 이후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조선언어학회의 결성은 규범성과 실용성의 국어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당시의 문제의식이 응축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7)</sup> 조선언어학회를 학술단체의 하나로 자리 잡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유응호는 1946년 5월 5일에 국립도서관 옹호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자신을 조선언어학회 대표로 소개했다.<sup>18)</sup>

이처럼 유응호는 조선어학회와 차별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하는데, 해방 공간에서 그의 활동은 대중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활동, 학회 연합체를 조직하는 활동, 정치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46년 4월 15일 전국문화단체총연맹 산하의 23개 문화단체가 함께 주최한 민족문화건설 전국회의에서 유응호는 김태준, 백남운 등과 함께 문화일반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유응호의 발표 주제는 “민족문화와 언어”였다. 이외에 유응호는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유응호가 대중 활동을 전개한 민족문화연구소는 조선학술원과 달리 백남운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조직<sup>19)</sup>이었다. 따라서 학술원회원 중 백남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응호는 중도적 민족통일전선을 표방하는 백남운을 지지하며 민족문화연구소의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응호는 민족문화연구소와 학술원이 공동주최하는 인문과학강좌의 제1기(1946년 9월 30일 -11월 30일) 과정에서 9개 강좌 중 하나인 ‘조선어학’을 담당하였다. 인문과학강좌가 대중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었지만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강의를 담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이 강좌가 단순한 국어실용문법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응호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일명 국대안) 반대 운동이 격화되면서 서울대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강좌를 통해 국어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도적 민족통일전선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응호는 남북분단을 막기 위한 지식인 운동을 전개한다. 그 대표적인 활동은 1948년 4월 14일李克魯, 李秉岐, 洪起文, 鄭寅承, 金起林, 金炳濟, 鄭烈模, 柳烈, 廉想涉, 鄭芝溶, 朴泰遠 등 어문학자들과 함께 ‘문화인 108인 남북협상지시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전쟁의 혼란 속에 남한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자진 월북의 길을 선택하였다.<sup>21)</sup>

17) “조선언어학계의 유지제씨가 중심이 되어 朝鮮言語學會를 창설하고 조선언어학의 연구 발달과 아울러 조선 언어의 과학적 지식보급을 꾀하기로 되었는데 동 회에서는 그 사업의 하나로서 제 1회학보 「言語」를 5월중에 간행 예정이다.” (서울신문 1946년 4월 21일자)

18) 국립도서관에 있는 법률도서를 법제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 방면에서 여론이 자자한데, 이대로 있다가는 법률도서뿐만이 아니라 농상부에서는 산업·경제도서를 문교부에서는 문학·교육도서를 가져가 책 없는 도서관이 될 것이니,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각 문화단체대표자 40여 명이 3일 하오 1시에 국립도서관 별실에 모여 李在郁 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宋錫夏를 의장으로 선출 하여 법령 제67호 제3조 전면철폐 요구를 결의하였다. (동아일보, 46년 5월 5일자)

19) 김두봉이 창립한新民당의 남쪽 지부라고 할 수 있는 경성특별위원회에서 운영했던 연구소.

20) 1-6기까지 진행되었는데, 1기당 2개월 강의(매일 두 시간씩)를 진행하였다. 당시 신문 기사를 참조하면 청강생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한 기의 수강생은 180명, 수강료는 200원이었다. 어문학자 중에서는 유응호 외에 梁柱東이 참여하였는데, 양주동은 제4기(1947년 4월 10일-6월 9일) 강좌에서 朝鮮文化學史論을 강의하였다.

21) 그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인공치하인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서울 수복 이전 가

월북 이후 유응호는 김일성대 어문학부 교수가 되었지만 북한 국어학의 성립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어학계는李克魯, 金炳濟, 鄭烈模, 柳烈 등 조선어학회 출신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그는 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50년대 말 숙청된 후 10년 만에 영어과 교수로 복권됨에 따라 국어학에 발을 들여놓을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9). “1930년대의 유럽언어학의 수용양상.” 『이혜숙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 한신문화사. 재수록: 고영근(2001).『한국의 언어연구』서울: 역락.
- 고지훈(2005).『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서울: 앨피
- 金敏洙(1980).『新國語學史』서울: 一朝閣
- 金敏洙(2003). “우리말의 규범생성문법에 대하여.” 『한국어학』19.
- 金芳漢(1988).『歷史·比較言語學』서울: 民音社.
- 방기중(1993).『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서울: 역사비평사
- 宋建鎬·姜萬吉(1995).『韓國民族主義論1』 서울: 創作과批評社.
-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 -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56.
- 최경봉(2008). “일제 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지향.” 『한국어학』40.
- 최경봉(2009). “金壽卿의 국어학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어학』4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2010년 11월 22일 원광대 최경봉>

---

죽을 남겨둔 채 월북한 것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 직전 있었던 정치적 굴곡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경성대학 재건에 깊이 관여했던 백남운, 신남철 등이 국대안 파동 이후 교수직을 사퇴하고 월북한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